

HEADLINE NEWS

지하철 화재 예방대책 강화 (베를린)

최근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가 보도된 뒤 독일 베를린시는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市の 지하철 화재 예방대책을 한층 강화했다. 우선 그동안 시행해 오던 지하철운영 업체와 소방본부간의 화재진압훈련을 앞으로는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정보를 상호 교환하기로 했다. 市는 지하철 화재시 발생하는 화염에 대처할 수 있는 특수 훈련시설을 3월말까지 설치할 예정이다.

독일의 지하철은 한국과 달리 차체가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로 되어 있지만, 市는 가연성이 있는 역내 설치물을 모두 제거할 방침이다. 또한, 화재 발생시 승객들이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모든 열차 안에 소화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市는 화재 발생시 소방대원들이 즉각 진입하고, 승객들이 즉시 대피할 수 있도록 2006년까지 모든 지하철역 내에 또 다른 두 번째 출입구를 만들 계획이다.

(Berliner Morgenpost, 2. 21)

HIGHLIGHTS

도시관리

- ① 도시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경제성장전략 추진 (오타와)
- ② 도시 수해 방지를 위한 법률 제정 (동경)

도시환경

- ③ 기후변화가 도시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 조사 (런던)
- ④ 시민과 함께 하는 폐기물 재활용 프로그램 추진 (시애틀)
- ⑤ 환경을 생각하는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요식업 환경의 날」 시행 (멜버른)
- ⑥ 용수 절약형 변기 보급으로 물 사용량의 1/3 감소 (시애틀)
- ⑦ '환경친화적 학교운영 시범도시'로 선정 (프랑크푸르트)

도시교통

- ⑧ 도로공사구간에서 차량 전조등 켜기 의무화 (펜실베이니아州: 해리스버그市)
- ⑨ 급행버스시스템 도입으로 버스 이용객 2배 증가 (호놀룰루)

사회복지

- ⑩ 지역주민을 위한 여가·체육시설 건립 (스위스 베른市)
- ⑪ 노숙자를 위한 무료 이동진료버스 운영 (빈)

① 도시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경제성장전략 추진 (오타와)

캐나다 오타와시는 「오타와 20/20 성장관리정책」의 5개 계획 중 하나로 'Corporate Services and Economic Development(CSED)'를 구성, 2020년을 목표로 기업환경 개선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나아가고자 다양한 경제전략을 추진중이다. 이러한 전략은 비교우위를 갖는 특성화 개발과 도시전역에 걸친 파급효과를 바탕으로 하는 도시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

CSED에 따르면, 2020년 시의 경제비전은 도시의 번영과 혁신을 유도하고, 경제 및 기술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특히 주목할 사항은, 이러한 경제비전이 시의 활기찬 경제구조, 고등교육을 받은 다양한 인적 구성, 연구·개발능력의 잠재력, 높은 수준의 삶의 질, 공공·민간부문간 상호 협력 등에 기초한다는 점이다. 향후 시의 도시성장전략은 지식 네트워크의 구축, 혁신적 아이디어와 실제 추진과의 연계, 경제활동 유인 및 장려 분위기 조성, 사람과 장소에 대한 과감한 투자, 적극적인 시 홍보 등 5가지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www.city.ottawa.on.ca)

② 도시 수해 방지를 위한 법률 제정 (동경)

일본 국토교통성은 도시지역 수해 방지를 위한 법률인 「(가칭)특정도시하천 수해대책법」을 새롭게 정비할 방침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하천을 수해지역으로 공포하고, 피난경로와 피난장소를 정비하는 등 침수대책을 수립할 의무를 가진다.

東京都는 이 법안을 통해 지금까지 하천이나 하수도로 나뉘어 있던 홍수대책을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시화가 진행된 지역 내의 강을 '특정도시하천'으로 지정, 이 하천이 범람하거나 하수도의 처리능력을 넘어 빗물이 넘쳐 나오는 '내수 범람'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일대를 피해지역으로 공포할 수 있다. 또한, 지사와 시·읍·면장, 하수도 관리자는 공동으로 수해 대책을 수립한다. 이 법률은 3월중에 의회에 제출해, 2004년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www.asahi.com/politics/update/0217/003.html)

③ 기후변화가 도시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 조사 (런던)

영국 런던시는 기후변화가 도시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1차년도 연구사업에 착수했다. ‘런던기후변화협의체(London Climate Change Partnership)’가 제안한 이 연구사업에서는 런던의 여름철이 더욱 더워지고 겨울철은 따뜻해지면서 비가 더 많이 내리는 등 기후변화로 나타날 문제점에 대해 상세히 조사할 예정이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금세기 말까지는 런던의 기온이 뉴욕의 현재 기온과 비슷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2050년까지는 시의 여름철 기온이 3.5°C 상승하고 중심부의 열섬효과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금세기 중반까지 겨울철 강우량은 10~20%, 강설량은 50~10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러한 기후변화가 삶의 방식은 물론 공원경관마저 바꿀 것이라며, 인구규모를 감안하면 시는 자원부족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것이므로, 기후변화에 대해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고 전략적으로 새로운 수요에 관해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야기되는 문제점에 관해 ‘런던 온난화’ 보고서가 지적한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기온상승으로 냉방을 위한 전력 소비가 20% 증가하는 반면, 겨울철 난방연료 소비는 감소된다. 또한, 사회적 영향으로 야외활동과 소음이 증가할 수 있다. 건설업 분야는 쾌청일수의 증가로 작업일수가 증가할 수 있지만, 여름철과 가을철 등 건조한 계절에는 지반의 침하로 여건이 악화될 수도 있다. 보험 분야에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폭풍과 홍수피해에 따른 보험료 지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 측면에서 더 중요한 영업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광 분야에서는 따뜻해진 겨울철에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www.london.gov.uk/approot/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1426)

4] 시민과 함께 하는 폐기물 재활용 프로그램 추진 (시애틀)

미국 시애틀市 공중위생국은 일반 시민들에게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의 중요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시민과 함께 하는 재활용 프로그램(FOR: Friends of Recycling Program)」을 시행중이다. FOR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민은 다른 이들에게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대신 일상생활에 재이용하는 지혜를 알려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市는 많은 시민들이 거주하는 공동주택단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저감을 위해 FOR 정책에 큰 관심을 쏟고 있다. 市공중위생국은 아파트 관리인들을 대상으로 재활용 교육 비디오를 시청토록 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폐기물 재활용 환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www.cityofseattle.net/util/services/apartment/default.htm)

5] 환경을 생각하는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요식업 환경의 날」 시행 (멜버른)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市는 레스토랑, 카페 등 요식업 분야에서 과다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 촉진 및 도시 청결 캠페인의 일환으로 「요식업 환경의 날」을 지정·시행중이다. 이날 市長은 시내 유명 음식점의 주방에서 앞치마와 요리사 모자를 착용하고, 음식물의 조리과정을 직접 참관했다.

이와 병행해 市당국은 ‘도덕적으로 건전하고, 환경을 배려하는 요리문화 정착’에 대한 홍보 안내물을 요식업 관계자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이 행사는 기본적으로 환경을 고려하는 요식업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했지만, 음식물 쓰레기 감량 등 직접적인 환경 편익 외에도 시민 모두에게 환경교육 캠페인을 홍보하는 부가적 효과도 거두고 있다.

(www.melbourne.vic.gov.au/upload/LordMayorCooksupStorm.pdf)

6] 용수 절약형 변기 보급으로 물 사용량의 1/3 감소 (시애틀)

미국 시애틀시는 아파트 단지 및 다세대 주택에서 상수도 용수의 과다 사용 원인이 화장실 변기 사용이라는 점에 착안, 기본 변기를 용수 절약형 변기로 교체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추진중이다. 특히, 시주택국은 용수 절약형 변기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환경단체, 주택공급업체 등과 제휴, 용기 교체시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소유주에게는 60달러, 저소득 가구를 위한 주택공급자 및 개별 가구에 대해서는 100달러의 교체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시의 10개년 수자원 보전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이 프로그램의 추진 결과, 첫 번째 시행연도에서는 25% 이상의 절약효과가 나타났으며,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35~48% 수준의 막대한 용수 절약효과를 거둔 바 있다. 시는 이러한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향후 매년 약 11억 ℓ (3,000가구의 1년 소비량)의 수자원 절약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www.pan.ci.seattle.wa.us/news/detail.asp?ID=3264),(www.ci.seattle.wa.us/news/)

7] '환경친화적 학교운영 시범도시'로 선정 (프랑크푸르트)

독일 프랑크푸르트시는 환경친화적으로 학교를 운영해온 노력을 인정받아 환경청이 수여하는 「학교운영 21」 상을 수상(受賞)했다. 시는 이번에 연방 전체 도시에서 유일하게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았다. 시교육당국과 일선 학교는 그동안 학교 운영에 주변 환경을 고려해왔으며, 에너지 절약을 통해 재정지출을 감소시켰다.

시교육당국은 일선학교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환경을 배우자”라는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여기에는 학교와 유아교육시설뿐만 아니라 주변 공휴지 등의 에너지관리 분야도 포함되어 있다. 앞으로 시교육당국은 환경 분야의 기업들과도 협조하여 에너지 절약 프로젝트를 개발할 방침이다. 또한 교육공간으로 자연보호지역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Frankfurter Rundschau, 2. 26)

8 도로공사구간에서 차량 전조등 켜기 의무화 (펜실베이니아주: 해리스버그市)

최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교통당국은 도로공사구간 통과시 차량 전조등 켜기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25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당국은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 도로공사구간 앞에 전조등을 켜도록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도로공사구간에서 발생하기 쉬운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당국은 이외에도 올 6월부터 새로이 시행되는 관련법에 도로공사구간에서 규정 속도보다 시간당 11마일(시간당 약 18km)을 초과해 운행한 과속 운전자에게는 15일간 면허정지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kyw.com/Local%20News/local_story_051152124.html)

9 급행버스시스템 도입으로 버스 이용객 2배 증가 (호놀룰루)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市는 최근 'Honolulu's City Express'라는 급행버스시스템(BRT; Bus Rapid Transit)을 개통한 결과, 버스 이용객이 2배 증가했고 90분이 소요되던 통근시간이 30분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스템은, 市가 중앙정부의 BRT 프로젝트 우수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정부지원을 받아 개통되었다.

BRT는 저상 차량, 승하차시간 단축을 위한 요금 선지불 시스템, 전용차로 운영, 현대식 정류장 디자인, 통합 교통정보 등을 통해 승객 수송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지하철과 같은 수준으로 높였다. 아울러, 저렴한 투자, 단계적 시행, 교통여건 변화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 많은 도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www.oahutrans2k.com) (www.commuterpage.com/civis)

(www.route1transit.com) (www.co.arlington.va.us/foruns/columbia)

지역주민을 위한 여가·체육시설 건립 (스위스: 베른市)

스위스 베른市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여가·체육 시설의 재건축 및 신축 건설을 추진 중이다. 市는 체육시설에 대한 투자가 시민의 건강증진으로 이어지면 장기적으로 사회비와 보건비를 절약할 수 있으므로 향후 경제적 이익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市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 18개의 잔디경기장과 5개의 실내체육시설, 빙상 및 수상시설 등을 건설하고, 아울러 기존의 낡은 체육시설들을 2004년부터 재건축할 예정이다. 또한, 이들 시설물은 우선적으로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만들 계획이다.

(www.bern.ch/Go.cfm?NA=N&FR=T&FS=aktuell/index.cfm)

노숙자를 위한 무료 이동진료버스 운영 (빈)

오스트리아 빈市는 최근 노숙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동진료버스를 무료로 운행 중이다. 이 버스는 노숙자의 건강관리뿐 아니라 언제 처할지 모르는 응급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의료진이 탑승하여 주당 40시간 가량 다양한 장소에서 활동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市는 노숙자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市에는 5천명의 노숙자가 있는데, 이중 천여 명은 고정된 숙박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市는 사회단체 및 종교단체와 함께 노숙자를 고정된 숙박시설로 옮길 계획이다. 또한 노숙자 해결의 최종목적을 재사회화에 두고 각 개인의 문제점 해소 및 노숙자 개인별 지속적인 후원 관리가 가능하도록 사회복지사와 그 외 전문가들이 활발히 활동 중이다. 市에서는 또한 가족단위의 노숙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건립했으며, 향후 5년까지 가족 노숙자의 이주를 진행하고 있다.

(www.wien.gv.at/ma12/wohnen_01b.htm)